

한나라 이번엔 '복당' 충돌

강 "논의할 때 아니다" 싸기 친박 "행동 통일" ...내홍 확산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을 떠나기 전 대구 달성군 하빈면 면사무소 앞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중앙), 주호영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9총선 이후 탈당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강재섭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복당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내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9총선에서 당선된 친박연대 및 친박무소속 연대 소속 당선자 24명도 지난 11일 대구에서 박 전 대표와 회동해 향후 행동 통일을 결의, 복당 문제의 처리 향배에 따라 여당이 또 한번의 심각한 내전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첫 정례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의 인터뷰에서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당장 순수 무소속 4~5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157석을 넘겨 전체 상임위를 장악하려고 꿈을 썼다며 '공작 정치' '강압정치'라고 비판받을 것"이라며 "탈당 친박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에 지금으로선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친박연대의 '당 대 당' 통합요구에 대해 "그것은 정계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는 민심을 왜곡해서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런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대 첫 정례회동을 마친 직후 나온 것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만약 받지 않겠다면 그것은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이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는 것이고, 따라서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대구 달성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홍사덕 선대위원장, 김무성 의원 등 친박연대 및 친박무소속 연대 당선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친박연대 및 친박무소속 연대 당선자들은 향후 행동 통일을 결의하며 한나라당의 선별입당 허용 움직임 중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 여·야 '5월 임시국회' 찬반 엇갈려

한나라 "민생법안 처리...시의적절"

민주당 "정치 공백기 줄속 처리우려"

여야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개최는 적절하다고 지원하고 나선 반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17대 국회 말기라는 정치적 공백기에 법안이 졸속처리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0여 개 법안 등 민생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17대 국회가 끝나면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국회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은 대부분 재법을 위한 법안"이라며 "5월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에 졸속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충분한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하규 공동대표도 이날 전북 조류인플루엔자(AI) 검역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문제, 경제살리기 등에 대해서 언제든 협조할 자세가 돼있다"면서 "그러

나 민주당에 사전협의도 없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얻었으니 '모든 힘이 이명박 정부에 있으니 우리 말 들어라' 이런 식의 일방적인 압박이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야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면서도 "상당수 의원이 낙선한 17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으로, 인수위 시절부터 매사를 졸속처리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무현 前 대통령 20일 광주 방문

퇴임 후 첫 나들이 ... 21일 함평 나비축제 참관

노무현(사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지방 나들이로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통합민주당이 실질적인 전국정당화에 실패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용섭 국회의원 당선자에 따르면 경남 진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은 오는 20일 광주에서 열리는 노씨 문중 행사에 참여한 뒤 광주·전남지역 지인들과 만난 등을 갖고 담양에서 1박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함평 나비축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이 첫 지방 나들이로 장소로

광주와 전남을 택한 것은 노풍(盧鳳)의 진원지, 즉 정치적 고향이란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노씨 문중 행사 및 함평 나비축제 참석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고향을 찾고 싶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것이

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정의와 대의를 따르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노 전 대통령은 이 당선자를 만난 자리에서 "과거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남에서 20% 지지율을, 내가 30%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은 영남에서 10%대의 지지율에 그쳤다"며 "열린우리당 해체 등 대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지역당의 색채가 오히려 강해진 것 아니냐"며 "통합민주당은 전국정당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당선자는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몽준 "6선 의원, 당권 도전은 당연"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7시 정당대회에서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6선 의원으로 당 선출직 지도부 5명을 뽑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당대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려면 선거에는 꼭 출마를 해야 하며, 당원들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

로 당원들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다닐 것이며,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큰 영향력을 재확인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경제도 경쟁이고 정치도 경쟁"이라며 "경쟁은 크게 봐서 협력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 향후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누구든지 최고위원 5명을 뽑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면서 "그분들은 모두 동반자이며 파트너이지 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친박(親朴·친박근혜)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현실을 잘 보면서 양쪽이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 시작의 자리가 끝의 자리

2008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압도적 위

합격생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 799이론반(개원일생) * 슈퍼스타팀의 합격신화는 계속된다 *

9급 광주지방직(5월 23일) 완전대비 백발백중, 문제 3000제 = 결론제출이반(4주합성) * 한빛 명강사진 직접출제! 전과목 교재 무료제공 *

최단기 점수업그레이드 필수과정 = 전과목 단과반개설 * 과목별 전국 최고수준인강 *

★ 한빛특장 ★ 수시상담을 통해 개별학습방안 제시 ★ 테마특강을 통해 취약과목 완벽보완 ★ 절감, 보강시 동영상 강의로 보완

지금이 최적이 한빛고시학원에서 공무원 합격의 기회를 잡아라! 한빛고시학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2009년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완전폐지

★ 2009년 공무원시험 대비 주부/대학생/직장인을 위한 ★

야간 <합격전략반>개설

시간 : 19:00 ~ 22:00, 3개월완성, 40만원 (문의해도)

공무원수강 "한빛 돌풍"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으로 몰린다.

비교거부! 최경의 강사진! 전국 최고의 사설!

에비공무원 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부구청약 234-0234

=가장 안정된 직업,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한연령까지=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통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	-----	-----	-----	-----	-----	-----	-----	-----	-----	-----	-----	-----	-----	-----

※ 특별한 개원, 가점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09:30분 강의시작만 모집 ※

5월 9급 지방직대비

합격수강 회원모집

5월 1일(주·애·모) 57개월 (8)평형 80만원, 1년 (평)평형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i.co.kr ☎ 222-4560

주택관리사

★ 2010년 ★

의무채용

★실시확정★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9월 7일 시험시행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향서점) ☎ 062)222-6790, 232-1088

www.damyang.co.kr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달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 일물상 210,000원 ▶ 으뜸상 350,000원 ▶ 소가족상 450,000원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달양한과

문의전화. 061-383-8283 직접배송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180-1번지 대표이사 박순애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생활안내 광고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